과연 나도 택하셨나?

(행9:10~19a)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과연 나도 택하셨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

눕니다.
‘과연 나도 택하셨을까?’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의 대적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참으로 질투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이 참 욕심 나고 샘나고 질투 나고 부럽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나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ㅇㅇ을 위하여’라고 할 때의 그 ㅇㅇ은 다르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왔습니다만, 이 예정론과 선택론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가 다시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건 설명할 수 없건 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해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게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증거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울을 향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세 가지 증표가 있는데, 택한 사람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세 가지 단계에 따라 주어지

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세 가지 단계마다 증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를 받으면 그 때마다 증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안수하도록 이끄시는 장면이 10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앞에서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택함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도바울 자신도 고백하듯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니 어머니 뱃속에 사울이라는 아기가 임신이 되기 이전에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의 시점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태어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내버려두셨을까요?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도록 자극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 살인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인데, 주님께서 이 살인죄를 짓도록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죄 없는 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죽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런 살인적 행위를 허용하신 겁니다.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 내버려두신 거예요.

택하신 그릇이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을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은 사울 자신 속에 가득히 들어차있는 죄악 됨을 드러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사도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은 내버려두시면서 사도바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본래 죄인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본래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간악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나서, 나단선지자의 비난을 받고 회개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탈취한 것은 새삼스럽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본래 죄인이었던 내 속의 죄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그 죄가 드러났다는 얘깁니다.

이 지구 표면 위에서 유일하게 참 진리가 소유되고 있던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도바울이 핍박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진리를 머금고 있는 단체에 대해 적대적인,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 대극점에 서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택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끄실 때에 십자가로 이끄셔서 택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도록 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처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 본래부터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택한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택한 자, 나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본래부터의 죄인이었던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택한 자라고 하는 증거는 전도자로서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봐도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 장애인으로서 사는 것이 택한 자들의 첫째 증표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증표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일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다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버립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십자가만 전하게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다 모르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도가 일어나고 첫 번째 증표가 주어진 다음에 두 번째 선택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과정이 무엇이냐?
십자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십자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무엇에 대해 죽는 겁니까?
이제까지 죄 짓고 산 내가 죽는 거고, 본래 죄인인 내가 죽는 거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 인간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표는 뭐냐 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쥔 자들이 반드시 세상을 빠져나가서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표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천국으로 완전한 만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증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뻐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안에서 만족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의 두 번째 증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얘깁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만족의 이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지금 이 세상 일이 잘 안 돼서 불만스러워요, 이 세상 일 때문에 불만이 자극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하면, 내 마음에 불만이 자극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업이 잘된다고, 자식이 잘된다고 내 마음이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내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쓰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쓰임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의 세 번째 증표는 쓰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래 죄인인 걸 깨닫고, 잠시라도 십자가를 놓게 되면 내 속에 본래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나의 마음을 다 점령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내 죄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 죽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죽노라면 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이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쓰십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참 질투가 날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박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박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장본인인 사울을 주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시겠다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안수하고 그를 믿음의 세계 안, 천국의 빛이 비치는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을 벗겨서 천국의 빛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아버지를 만나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기도 가운데 얻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하면 이건 택한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건 택함이 없다고 봐도 좋아요.
내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시로 계속 나간다면 택하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 사실이 들리고 두려우면 택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한 만족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깨서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을 얻었을 때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려두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그러면, 보내져서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건 가정의 상황이건, 직장이건, 직장의 상황이건, 모든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나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꼭 사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천국으로 만족한 상태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으로 보내진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는 내 능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쓰임 받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를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의 어느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서 안수해 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계시해주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자기가 눈이 뜨게 될 것을 이 사울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다 맞춰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앞뒤를 맞춰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쁜 다음에 세상에 보내질 때는 아무 염려 마시고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시면 다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핵심부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림

으로 제시하듯이 제시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듯이 그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가 택함을 받은 자면 붙잡을 것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면 안 붙잡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의 판단이 금지돼야 될 것은 그가 십자가를 전해 듣고 십 년 뒤에 붙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단지 증표는 내가 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택의 증표를 날마다 확인하셔서, 세 가지 단계의 선택함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의 세 가지 증표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